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 8. 14(목)

한·일 간 경제·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

-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-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면담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김정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.14(목)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(水嶋光一)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동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·통상 환경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과 한·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실질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, 글로벌 사우스 지역 통상협력, AI·디지털,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신통상 이슈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

여 본부장은 한미일, 한일중 등 한·일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(소)다자 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. 아울러 「제21회 한-호쿠리쿠 경제협력회의(8월, 일본 이시카와현)」, 「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(11월, 대전광역시)」 등 계기에 지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.

마지막으로, 올해 양국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오사카·간사이 엑스포(4~10월) 및 APEC 2025(10~11월, 경주)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, 중앙부처뿐 아니라 해외공관, 무역진흥기관 차원에서 소통과 협조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	책임자	과 장	박현종 (044-203-569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섭 (044-203-567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